



도립예술단 첫 합동공연은 이탈리아 오페라

19세기 초연 '카발레리아...'
'팔리아치'와 나란히 공연
7월 제주아트센터 무대에
제주·서귀포합창단원 포함
주·조역 오디션으로 선발

제주도립예술단의 2020년 합동공연 작품이 결정됐다. 제주도와 제주도립 예술단은 7월 10~11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를 나란히 올리기로 하고 국내외 음악대학에서 공부한 성

악가를 대상으로 주·조역을 모집하고 있다.

도립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합창단, 서귀포관악단 등 5개 도립예술단은 지난해 12월 제주아트센터에서 처음 한 무대를 가졌다. '큰 울림'이란 이름을 달고 별인 합동공연이었지만 제각각 작품을 선보이는 형식이였다.

이번에 준비하는 오페라는 5개 단체가 공동 기획해 말 그대로 하나의 무대를 펼친다는 점에서 도립예술단 최초의 합동공연이나 다르다. 사업비는 총 2억5000만원으로 도립예술단은 음악감독에게 친숙한 오페라 두 편을

선택해 단원들의 역량이 결집된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연출은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가를 지낸 이의주씨가 맡고 지휘는 정인혁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담당한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1890년 초연된 작품으로 사랑의 삼각 관계를 다뤘다.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는 1892년 초연작으로 유랑극단을 둘러싼 치정극이다. 이탈리아 남부 지방을 배경으로 한 이 두 편은 짝을 이루어 공연되는 일이 많다. 두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소재로 한 베리소(이탈리아어로 '사실주의')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통한다.

도립예술단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산투차, 투리두, 알피오, 맘마 루치아, 로라 역을 공개 오디션으로 뽑는다. '팔리아치' 역시 카니오, 토니오, 넷다, 실비오, 베페 등 주·조역을 공모하고 있다. 제주합창단, 서귀포합창단원도 오디션에 응시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3월 4일까지. 1차 서류와 동영상 전형은 통과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3월 11~12일 제주아트센터에서 공개전형으로 2차 실기 오디션이 실시될 예정이다. 오디션 곡목 등은 제주예술단·제주도청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28-2745-2747. 전선희기자

2500명이 기념할 사반세기 관악제

8월15일 한라체육관 실내
대규모 관악제 경축음악회
조직위, 도민 참가자 모집

사반세기 역사를 맞는 제주국제관악제에 대규모 연합 합창과 관악 선율이 아우러진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위원장 현을생)는 제주국제관악제 25주년을 맞아 8월 15일 한라체육관 야외 열린 경축음악회에 2500명 규모의 합창단과 관악단이 참여하는 공연을 펼친다.

도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제주국제관악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종전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치러온 경축음악회와 달리 한라체육관 실내로 장소를 바꿨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는 이와 관련 제주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교 이상 합창단과 관악단원을 대상으로 경축음악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3월 13일까지 조직위원회 이메일(bandfestival@hanmail.net)로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국제관악제는 매년 여름 '섬,



제주국제관악제 8·15 경축음악회. 25회째인 올해는 도민 2500명을 모집해 한라체육관에서 치른다.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같은 시기에 관악공쿠르가 개최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추

구하는 '제주형 국제관악제'로 이름을 높여가고 있다. 문의 064)722-8704. 전선희기자

문화가 짝지

빈방송교향악단 공연 취소

제주아트센터가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공연의 첫 일정으로 마련했던 오스트리아 빈방송교향악단 초청 공연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당초 3월 14일 열기로 했던 빈방송교향악단 내한 공연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 투어로 기획했다. 전국 주요 6개 도시 투어 중 하나로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을 들려줄 예정이었다. 앞서 제주아트센터는 10주년 기념 무대로 제주4·3 창작오페라, 소프라노 신영옥 데뷔 30주년 공연, 유니버설발레단의 창작발레 공연, 독일첼버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임춘배 조각품 4·3재단 기증

조각가인 임춘배 제주대학교 교수가 지난 20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호준)에 작품을 기증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8~9월 4·3평화기념관에서 '4월의 단상'을 주제로 특별전을 열었고 앞서 4월에는 4·3 평화공원 위령제단의 새 향로를 제작했다. 이번에 기증한 작품은 '평화'로 동그란 모형에 경계가 없는 자유로움의 상징인 새의 날개와 대지를 형상화해 평화의 의미를 담았다. 4·3평화재단은 임 교수의 기증 작품을 4·3평화기념관 방문객들이 널리 관람할 수 있도록 기념관 1층에 전시했다고 밝혔다.

문화포럼 '장자 읽기' 특강

사단법인 제주문화포럼(원장 정예실)은 시민 무료특강으로 마련한 '장자 읽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환난의 시대, 변혁의 시대를 살면서 열정적으로 '이건 아니니, 저것도 아니다'라고 외쳐댔던 장자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장자'의 내편, 외편, 잡편 가운데 내편 7편을 중심으로 함께 읽고 토론한다. 3월 12일 오후 7시 개강해 총 14강에 걸쳐 문화공간 제주아트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강의가 이어진다. 2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문의 064)722-6914.

제주음악창작소 2월말 첫 삽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이달말부터 예술의전당 부지 내 음악창작소 건축 착공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주예술인 및 시민들에게 창작 문화 활동 공간과 서귀포예술단의 연습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음악창작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되며, 지하 1층은 음반(음원) 제작 과정에 필요한 고품질의 녹음 스튜디오 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1층은 음악 강의실·연습실·다목적실로 구분 설치해 예술인을 위한 연습 및 창작 활동의 장소로 개방되며, 2층은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주(2월 24~3월 1일) 무대 & 미술

장미로 불러보는 그리운 이의 이름

한울속씨 개인전 '블로섬'
'꽃이 피다' 연작 등 소개



한울속의 '꽃이 피다'.

전시장 가득 장미가 피어났다. 한울속씨 개인전 '블로섬(Blossom)'의 풍경이다.

서울 갤러리에 이어 제주에 풀어놓은 이번 전시에서 한 작가는 줄곧 '자매이자 친구'인 장미를 그렸다. '소풍', '꽃이 피다', '선물' 연작 등 유난히 장미를 좋아했던 가까운 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유지철 '페인터즈 히어로-제주' =3월 31일까지 화·일요일 오후 5시 제주관대 컨벤션홀. 문화가 있는 날인 2월 26일 관람료 할인. 745-7848.

▶남버벌퍼포먼스 '난타' =12월 31일까지 제주난타전용극장. 문화가 있는 날인 2월 26일 오후 5시 공연 할인. 723-8878.

▶연갤러리 이민 초대전=2월 25일까지. 010-8954-3435.

▶성창학의 '유리-바다를 품다' =2월 26일까지 포도갤러리. 793-7021.

▶한울속씨 개인전 '블로섬(Blossom)' =2월 27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2020 소장품전 '심심상인(心心相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주최 2월 27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백광의 초대전 '오름 위에 부는 바람' =2월 2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제주 갤러리.

735-1001.

▶김민덕기념관 나눔 작은 그림전 '우리 집에 그림 하나' =2월 28일까지. 759-6090

▶'꼬마여우' 원화전=2월 28일까지 한라도서관. 710-8666.

▶박여순 섬유전 '갈색일기' =2월 28일까지 심헌갤러리.

▶김진수 개인전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2월 29일까지 비오토피아 갤러리.

▶이남찬 초대전=2월 29일까지 현인갤러리. 747-1500.

▶경계의 감각=2월 29일까지 예술공간 이아. 800-9334.

▶김산 개인전=2월 29일까지 밀문도 갤러리. 755-0006.

▶김민수 개인전 '우리는 귀여하게 오래오래' =2월 29일까지 스페이스 산호. 010-3430-7334.

▶전국 책방 사진전 '마지막 제주' =2월 29-5월 15일 전국 7개 지역 책방에서 진행된다. 010-7361-2022.

▶진선인 국제미술전=2월 29-3월 5일 문예회관. 710-7633.

▶세계자연유산 제주 서포터즈 사진전=3월 2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전선희기자

7개 지역 책방서 '마지막 제주' 사진전

전국 7개 지역 책방에서 오늘날 제주를 말하는 사진들이 전시된다. '프로젝트 제주'가 기획한 '마지막 제주' 전시다.

이달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엔 12명이 촬영한 제주 난개발, 군사기지, 마을, 제2공항 문제를 다룬 사진을 선보인다. 강정, 비자림로, 성산, 중산간마을 이야기

등이다. 참여 책방은 노란우산, 나비날다책방, 동네책방숨, 자연과학책방 동주, 머내책방우주소년, 북살롱이마고, 서점까프카, 숲속작은책방, 제로한드레드, 조은이책, 책과아이들, 책방국자와주거, 책방부사, 책약방, 책방이음, 책방토닥토닥, 파파사이트, 피스북스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0,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 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달린다. 참여 책방은 노란우산, 나비날다책방, 동네책방숨, 자연과학책방 동주, 머내책방우주소년, 북살롱이마고, 서점까프카, 숲속작은책방, 제로한드레드, 조은이책, 책과아이들, 책방국자와주거, 책방부사, 책약방, 책방이음, 책방토닥토닥, 파파사이트, 피스북스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광양사거리